

#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아동의 삶의 질

## Changes in Korean Families and Child Development

한경혜(Gyounghae Han)<sup>1)</sup>

이정화(Jeonghwa Lee)<sup>2)</sup>

진미정(Meejung Chin)<sup>3)</sup>

### ABSTRACT

Korean families have been undergone tremendous changes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with societal changes. Korean families become smaller, diverse, and multi-cultural. These family changes challenge child development research. Family is not just an intimate relationship. Family is also a structural environment, a system linking micro and macro system, an institution, and an ideology. Consequently, researchers need to pay attention to various ways family influence child development and take into account family as a whole unit. Researchers are also challenged to make a stance regarding family changes and diversity. Temporality is another important issue in studying how family development and child development interact. In terms of public policy, social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to cope with the new social risks from family changes and to mitigate a growing developmental gap among the children of families with different economic classes.

**Key Words** : 가족구조의 변화(family structure change), 다양한 가족(diverse families), 가족과 아동발달의 연계 (linkage between family and child development),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 아동관련 정책 (child-related policy).

### I. 가족과 가구의 구조적 변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가족구조의 변화를

보았을 때, 그 변화양상은 매우 빠르고 다양하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회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 도시화,

<sup>1)</sup>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sup>2)</sup>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조교수

<sup>3)</sup>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Gyounghae Ha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599 Gwanangno, Shillim-dong, G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 ghhan@snu.ac.kr

민주화, 근대화된 의식 등이 가족생활 전반에 나타난 변화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각 년도의 통계청 자료 및 정부기관 보고서에 근거,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30년 동안의 가족, 가구 변화에 초점을 두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연구쟁점과 실제적, 정책적 이슈들을 기술하였다.

### 1. 가족형태의 변화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화

1) 평균 가구원수 감소와 가족형태의 변화  
 우선,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난 30년 동안 소인수화 경향이 크게 나타나 1975년 5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05년 현재 3명 이하로 낮아졌다. 이는 1인가구의 증가, 가구당 자녀수 감소, 직계가족의 감소, 청장년층의 만혼 및 비혼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특히 농촌의 경우 젊은 층의 지속적인 이농과 노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1995년을 기점으로 가구당 가구원수가 도시

보다 더 적어지게 되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구학적 현상으로서 1인가구는 지난 30년 동안 약 5배로 증가하여 이제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할 정도이다. 젊은 성인들이 직장,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도시 지역에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미혼인 상태로 오랫동안 1인가구 형태를 취하거나 노인들이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족 내에서도 부부가족은 지난 30년 동안 약 2.8배가 증가한 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감소하고 있다. 부부와 양친과 자녀로 이루어진 직계가족 역시 2005년에는 1975년에 비해 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 2) 저출산 고령화

족구조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저출산 현상을 간과할 수 없다. 합계출산율은 1975년 약 3.5이던 것이 1980년대 들어 인구대치수준 이하로 떨어져 2005년에는 1.08에 이를 정도로 하락하게 되었다. 합계출산율은 2006년 2007년 잠깐 오르

<표 1>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단위 : %)

연도	일반가구 (천가구)	1인가구	핵가족			직계가족			평균 가구원수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친과 자녀	양(편)	
1975	6,648	4.2	5.0	55.6	10.1	0.5	10.9	5.0	
1980	7,969	4.8	6.5	57.4	10.1	0.6	10.6	4.5	
1985	9,571	6.9	7.8	57.8	9.7	0.8	9.9	4.1	
1990	11,355	9.0	9.3	58.0	8.7	0.9	9.3	3.8	
1995	12,958	12.7	12.6	58.6	8.6	1.1	8.0	3.3	
2000	14,312	15.5	12.3	48.2	7.9	1.0	5.7	3.1	
2005	15,887	20.0	14.2	42.2	8.6	1.0	4.5	2.9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2006.

<표 2>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

연도	저출산					고령화		
	총 혼인건수	조혼인율	평균초혼연령		합계출산율 <sup>2</sup>	노인인구비율		
			남	여		전체	도시	농촌
1975	283,226	8.0	26.8	22.8	3.47	3.5	1.6	4.6
1980	403,031	10.6	26.4 <sup>1</sup>	23.2 <sup>1</sup>	2.83	3.8	2.6	5.6
1985	384,686	9.4	27.0	24.1	1.67	4.3	3.0	6.8
1990	399,312	9.3	27.8	24.8	1.59	5.1	3.6	9.0
1995	398,484	8.7	28.4	25.4	1.65	5.9	4.3	11.8
2000	332,090	7.0	29.3	26.5	1.47	7.2	5.5	14.7
2005	314,304	6.5	30.9	27.7	1.08	9.3	7.2	18.6
2007	343,559	7.0	31.1	28.1	1.26	9.9	6.0	27.8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sup>1</sup> : 1981년 남녀의 초혼연령임.

<sup>2</sup> : 15-49세 여자 1명당 평균 출생아수임.

는 듯 하다가 2008년 1.19로 다시 떨어진 상태이다. 출산율 저하는 청장년층의 만혼 경향과 비혼자 증가와도 관련이 깊다. 최근 총 혼인건수가 많이 줄어들어 조혼인율은 6~7%대에 머물고 있고, 평균 초혼연령도 1975년과 비교해볼 때 2007년 남자는 4.3세, 여자는 6.3세가 높아져 남성의 초혼연령은 31세, 여성은 28세를 넘어섰다. 결혼 시기가 지연되고, 결국 독신으로 남게 되거나, 결혼 후에도 무자녀 가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도 우리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저출산은 그 사회의 고령화 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 7.2%로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농촌은 당시 이미 노인인구 14% 이상의 고령사회에 도달했다.

## 2. 다양한 가족의 증가

앞에서 제시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구단위의 조사결과로서 그 가족의 혼인관계, 혈연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 한국 가족은 지난 30년 동안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분화되었는데 특히 이혼의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이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낮아졌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족이 증가했다. 전산업사회에서 빈곤, 전쟁, 질병 등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이 가족해체의 주원인이었다고 한다면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이혼, 재혼, 비혼, 국제결혼 등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더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함께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가족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특정한 유형의 가족이 문제가족인 것은 아니다. 어

&lt;표 3&gt;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1970	1980	1990	1998	2000	2003	2004	2005	2007	2008
이혼건수(천건)	11.6	23.7	45.7	116.3	119.5	166.6	138.9	128.0	124.1	116.5
조이혼율(건/인구천명당)	0.4	0.6	1.1	2.5	2.5	3.4	2.9	2.6	2.5	2.4

자료 : 통계청, 「2008년 이혼통계 결과」

떠난 형태의 가족도 문제가족이 될 수 있으며, 문제에 처한 가족 역시 적절한 지원이나 치료가 이루어지면 문제단계를 극복하여 기능적인 가족으로 변화할 수 있다(Chilman et. eds., 1988; 박민선, 1995 재인용)

따라서 지금은 ‘전형적인 가족유형(The family)’에 집착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형태들(families)’을 인정하고 각 형태의 가족이 그 가족형태 안에서 가족기능을 잘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보다 더 튼튼하게 해야 할 시점이다.

여기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증가한 몇 가지 대표적인 가족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이혼 재혼가족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이혼율이 상승하였다. 1970년에 11,600건에 불과하던 이혼건수가 2003년에 정점에 달해 166,000여건에 이르렀다가 그 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들의 수도 증가하여 90년대 이후 전체 이혼건수의 70% 이상이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이었고, 2002년 이후 60%대로 감소하다가 2008년에는 54%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십만명 이상의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여 지난 30년간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누적 아동 수는 수백 만 명에 이른다.

이혼증가와 더불어 재혼건수도 2005년 46,351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혼

인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24%를 차지하게 되었다. 재혼하는 부부들을 살펴보았을 때, 과거 초혼여성과 재혼하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초혼남과 결혼하는 재혼녀 비율과 부부모두 재혼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한부모 가족

과거에는 사별이, 최근에는 이혼과 사별이 한부모 가족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한부모 가구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중 모자가족이 약 80%, 부자가족이 약 20%를 차지하는데 최근 부자가족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자가족의 경우 사별로 인한 모자가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이혼으로 인한 모자가족이 증가하는 반면, 부자가족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부자가족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져 2005년에는 부자가족의 약 50%가 이혼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 이혼의 증가로 더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한부모 가족은 아동양육과 경제활동 부담이 한부모에게 집중됨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sup>1)</sup>

1)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증가율에 기여한 바 있다. 1980년 약 43%였던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 47%, 1995년 48%로 증가했고, 그 이후 50%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여성의 생활상이 필요나 경제적 독립에의 욕구 증가에 힘입어 경제활동 참가비율이 증가했다고 보여지지만, 여성의 교육수준

<표 4> 부부의 혼인형태별 구성비

(단위 : 천건,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남(초)+여(초)	92.6	92.2	90.6	89.5	89.7	81.9	73.8	77.2	77.3	76.1
남(재)+여(초)	3.6	3.5	3.7	3.5	2.8	3.4	4.2	4.2	4.3	4.6
남(초)+여(재)	0.8	1.2	1.7	2.5	2.6	4.9	6.4	5.5	5.7	6.3
남(재)+여(재)	3.0	3.1	4.0	4.5	4.9	9.6	14.7	12.5	12.2	1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초) : 남자초혼, 남(재) : 남자재혼, 여(초) : 여자초혼, 여(재) : 여자재혼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표 5> 혼인상태별 한부모 가족 현황

(단위 : 1,000가구, %)

연도	한부모 가구수 (A)	혼인상태별 모자가구(%)					모자 가구 비율 (B/A)	혼인상태별 부자가구(%)					부자가 구비율 (B/A)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B)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B)	
1995	960	21.0	58.2	9.3	11.5	100	82.0	29.5	39.3	29.5	1.7	100	18.0
2000	1,124	21.6	48.4	16.9	13.1	100	80.4	26.3	29.1	42.3	2.3	100	19.6
2005	1,370	24.4	39.4	23.9	12.3	100	79.1	22.3	25.8	48.8	3.1	100	20.9

자료 : 통계청

3) 조손가구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조손가구는 58,000가구로, 전체 세대의 약 0.4%에 불과하지만 1995년 이후 10년 사이에 65.1%, 약 23,000여 가구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가구증가율 22.6%와 비교해볼 때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 이어져 2030년에는 전체 가구의 0.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손가구 증가는 일차적으로 가족안정성 약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sup>2)</sup> 가족안정성의 약화는 사회적인

경제적 불안정과 관련이 깊다. 1997년 말 IMF 이후 진행된 비정규직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근로빈곤의 증가 등이 저학력 저임금의 임시직 남성 노동자들의 빈곤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었고 실업확산에 따른 중산층의 빈곤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가족해체로 이어졌고 조손가족 증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손가구 비율은 농촌에서 더 높게 나타나,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가구 중 조손가구 비율은 농촌이 도시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혼 등 가족해체를 경험한 일부 도시 성인자녀들이 자녀 양육책임을 농촌의 노부모에게 전가하고, 한국적 부계혈연중심의 가족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는 농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과 국민소득 증가나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 낮은 비율에 불과하다.  
 2) 조손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여성가족부, 07)에 따르면, 조손가구의 손자녀 양육은 부모의 이혼 및 재혼(45%), 부모의 사망(20.2%), 부모의 가출 및 실종(18.3%), 부모의 실직 및 파산(7.3%)이 주

<표 6> 전체가구 중 조손가구 비(도시/농촌 비교) 및 조손가구 수

구분	1995	2000	2005
전국	0.3	0.3	0.4
동부	0.2	0.2	0.3
읍면부	0.6	0.6	0.7

  

연도	조손가구 수
1995	35,19
2000	45,22
2005	58,10

자료 : 여성가족부(2007),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촌의 노부모들은 손자녀들을 길러내고 있다. 복지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조부모는 위기 시 가족의 유대감을 대신해주고 여러 부정적인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주는 가족체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한경혜, 2007). 그런데 이러한 조손가족이 핵가족 해체 후 대안적 가족형태로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에 대한 실제적인 사회적 서비스가 요구된다.

#### 4) 국제결혼

국제결혼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4년 이후에는 전체 결혼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다. 2007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1990년의 국제결혼 건수와 비교했을 때 8배, 10년 전인 1997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1995년과 2005년을 기점으로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인 남성의 결혼도 증가했다<sup>3)</sup>.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된 이후 국제결혼 가정

3) 2007년 8월, 우리나라는 체류외국인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중에는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56%, 결혼이민자, 14%, 외국인 유학생이 7%를 차지하였다.

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결혼 증가는 국제결혼 2세 자녀의 증가로 이어졌다.

#### 5) 입양가족

98년 이전까지는 전체 입양 아동 중 외국으로 입양되어가는 아동이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국외입양이 국내입양을 크게 앞섰지만 2000년대 진입을 전후해서 국외입양이 60% 아래로 떨어졌고, 2007년에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앞지르게 되었다. 입양의 동기도 '대를 잇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정이 쓸쓸해서' 혹은 '사회봉사 차원에서' 입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비공개 입양이 주를 이루었으나 공개입양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공개입양도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 6) 그 외 다양한 가족들

남녀가 결혼하면 자녀를 갖는 것을 바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여성의 역할변화, 개인주의적 성향의 증가, 피임법의 발전 등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자발적 무자녀 가족을 증가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생물학적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의 유전자를 선택해서

<표 7> 국제결혼 추이

(단위 : 건, %)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1990	399,312	4,710	1.2	4,091	1.0	619	0.2
1991	416,872	5,012	1.2	4,439	1.0	663	0.2
1992	419,774	5,534	1.3	3,477	0.8	2,057	0.5
1993	402,593	6,545	1.6	3,436	0.9	3,109	0.8
1994	393,121	6,616	1.7	3,544	0.9	3,072	0.8
1995	398,484	13,494	3.4	3,129	0.8	10,365	2.6
1996	434,911	15,946	3.7	3,229	0.8	12,647	2.9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2007	345,592	38,491	11.1	29,140	8.4	9,351	2.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2007

출산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에 다수의 동거가족도, 동성애 가족도 존재한다. 부부가 결혼해서 남편이 생계를 담당하고 부인은 자녀양육과 살림을 하던 가족의 모습에서 벗어나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부인이 생계를 담당하고 남편이 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가족<sup>4)</sup>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족은 거주공동체로서 한집에서 살고 한솥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지켜지지 않은 지 오래다. 세 지붕 한 가족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직업, 교육

등의 이유로 여러 가구로 흩어져 사는 분거가족도 증가하였고 주말에만 혹은 한 달에 한번정도 가족이 만나는 원거리가족, 초국적 가족(기러기 가족)<sup>5)</sup>과 같은 용어 역시 익숙하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변형된 가족유형이 등장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더구나 이러한 변화를 어느 사회보다 빨리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달리하며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가진 의미를 찾고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가족을 유지해 나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 3. 가족구조의 변화와 관련한 경제적 환경 및 정책의 변화

#### 1) 경제적 환경의 변화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가장 중요한 축 중의 하나는 경제이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

4) 남편 전업주부는 2003년 106,000명 수준에서 2008년 151,000명으로 5년사이 약 50%가 증가했다(통계청, 2009; 조선일보 2009년 7월 27일자(A1) 인용).

5)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주는 16.5%에 이르게 하는데 해당 가구원이 국외에 있는 경우는 11.4%이다. 소득 수준별 비교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국외에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족이 외국에 따로 사는 이유는 71%가 학업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사회조사(보건 가족부문) 결과>.

&lt;표 8&gt; 입양가족 현황

구 분	입 양 아 동			구 분	입 양 아 동		
	계	국 내	국 외		계	국 내	국 외
'98 이전	227,983	68,939	159,044	2003	3,851	1,564	2,287
1999	4,135	1,726	2,409	2004	3,899	1,641	2,258
2000	4,046	1,686	2,360	2005	3,562	1,461	2,101
2001	4,206	1,770	2,436	2006	3,231	1,332	1,899
2002	4,059	1,694	2,365	2007	2,652	1,388	1,264

자료 : 통계청

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1980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소득은 1,598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19,231달러를 기록하여 약 1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6년에는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국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소비와 복지의 측면에서 아동과 가족의 삶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30년은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경제적인 위기와 문제 역시 경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몇 차례의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1997년 금융 위기는 그 영향의 깊이와 넓이 면에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금융 위기는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동반하여 고용구조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고, 산업 간,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신명호, 2005). 또한 가장 소득이 높은 5/5분위와 가장 낮은 1/5분위의 소득 격차와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역시 높아지고 있어 고용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최근의 경제 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경제 위기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비단 경제적 측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가족 내 부양자의 실직은 정서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높여서 가족관계의 질을 손상시키고, 가족부양과 가사분담과 관련하여 가족 내 권력관계와 역할을 재편함으로써 가족갈등과 가족해체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이현송, 1999; 임인숙·안병철, 2000).

## 2) 아동·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의 확대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이 단순한 선형적 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한 국가의 경제수준은 복지수준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복지수준이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 위기로 인해 보편적인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지금의 복지정책의 틀을 마련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역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잔여주의 복지정책에



서 벗어나 보육정책, 어린이안전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청소년육성정책 등으로 분화, 확대시켜 왔다. 특히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정책 대상과 수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보육예산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모두 합하여 2006년 현재 2조 9,556억원으로 GDP 대비 0.35%까지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4년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 2008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어 가족정책과 저출산정책이 출범하면서 아동과 관련된 정책은 더 넓은 범위의 보편적 사회정책의 틀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 II. 연구쟁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한국가족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아동 발달의 양상과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연구쟁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 1. 가족과 아동발달과의 다양한 연계경로를 이해하는 실증연구가 요구된다.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규모 및 구조의 변화는 아동발달의 물리적 환경의 직접적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가족 내 상호작용의 다이내믹과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간접적 경로로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서, 거시제도와 미시체계의 중간단위로서 교육이나 경제제도 등 다른 사회제도에서의 변화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족은 또한 그 자체가 발달단

계를 가지는 단위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동발달의 궤적에 가족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국내의 아동학 분야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이 상당히 ‘간단하게’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 발달의 프로세스에 주목하다보니, 가족은 통제되어야 할 변수로 다루어지거나 단순한 배경변수로 모델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달하는 아동과 가장 중요한 미시체계인 가족과의 상호작용 자체에 주목하는 체계적 실증연구가 요구된다.

### 2. ‘단위로서의 가족’과 아동발달과의 연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에서 가족환경의 중요성을 무시해 온 것은 아니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종종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특성이나 양육행동과 같은 개인수준 변수를 가족환경 변수인양 사용하여 왔다. 가족구조와 같은 가족단위의 특성과 아동발달과의 연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이혼가족,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기상으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가속화된 이혼율의 증가 등 한국가족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족이나 조손가족 아동에 대한 연구들도 여기에 추가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학업성취도, 적응, 문제행동 등 다양한 측면의 자녀 아웃컴(outcome)간의 연계성을 탐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가족구조 뿐 아니라 제도로서의 가족, 성장 발달하는 구성원들의 관계로서의 가족, 문화적 관념체로서의 가족 등 다양한 측면에

서 가족을 분석단위로 연구모델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아동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가족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화 내지는 연구자의 관점을 명확히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혼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변화와 아동발달의 연계성을 탐색한 아동학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구조의 불리함’에 의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애정이 이들 연구들을 관통하는 기본적 시각임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애정 어린 시각의 근거에는 가족학자들이 ‘가족신화’라고 지칭하는, ‘정상가족, 전형적 가족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즉, 양부모로 구성된 가족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한국가족에게서 관찰되는 변화를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양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 자녀를 비교하거나, 이혼가정과 “일반 가정”<sup>6)</sup> 자녀를 비교하는 연구설계는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등 종속변수의 선정에 있어서도 이혼가족, 조손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을 ‘문제’로 보는 시각이 드러난다.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가족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데, 가족 기능의 붕괴를 강조하고 가족변화를 가족위기, 해체로 보는 보수적 시각과, 이를 다양성 증가라고 보는 진보론적 시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sup>7)</sup> 서구에서는 1960년대에 진행된 가족변화에

6) 이혼가정에 대하여 결손가족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제목이나 논문의 본문에서 ‘일반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혼가정 자녀와 대비하는 경우, 이혼가정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문제가족이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주게 된다.  
7)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크게 두 범주로 분류하였

대한 이 두 진영 간의 상이한 해석으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가족전쟁(family war)’이라고까지 지칭된 이 논쟁은 1980-1990년대에 그 절정에 달하였다. 가족변화를 가족해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의 증대로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건강성을 상실하고 아동양육, 사회화 등 재생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에, 진보적 입장에서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과 가족의 선택과 적응전략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에 ‘아동’과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있다. 예를 들면, 가족위기론자들이 아동의 빈곤화 등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강조한다면, 진보론자들은 갈등하는 부모, 역기능적 가족관계가 이혼보다 오히려 더 자녀에게 부정적 환경이라고 주장한다. 위기론자들은 부성(fatherhood)의 독특성과 아동발달에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가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진보론자들은 부성의 필수성 담론을 해체할 것을 주장한다. 이 밖에 많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하여 각 진영은 상이한 담론을 생성해낼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연구결과들 또한 제시하고 있다. 가족을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 간에는 한국가족의 급격한 변화를 가족해체가 아닌 재구조화 과정으로 보는 진보론적 시각이 우세하다. 사회적, 정책적 담론에서는 가족해체와 불안정성의 증가에 주목하는 위기론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과 대조된다. 서구의 논쟁을 지켜보면, 어떤 시각에서 가족변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연구결과의 해석 뿐 아니라 연구주제나 모델을 구성하는 변수의 선정까지도 달라지게 될

을 뿐,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 내에서도 상당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아동발달을 연구하는 국내의 학자들이 가족변화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안녕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양부모 가족의 건강성을 강조하다보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이혼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속하는 아동들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4. 가족과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에 있어 ‘시간성(temporality)’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자들의 고려가 요구된다.

서구에서는 라이프코스(생애과정, Life Course) 관점에서, 인간발달을 개인시간(individual time), 가족시간(family time),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의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 상당정도 축적되었다. 개인시간은 발달주체의 연령을 의미하며, 가족시간은 가족역할의 구성과 가족주기상의 위치를 의미한다. 역사적 시간은 아동의 삶이 펼쳐지는 시기(period)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의미하며, 주로 아동이 속한 출생코호트 멤버십(Cohort Membership)으로 구체화된다. 사회학자 엘더(Elder)가 미국 대공황기의 아이들에 대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발표하면서, 라이프코스 관점은 아동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 생태학적 모델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관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엘더는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잘 보여줌으로서, 매우 미시적 환경에 집중되어 왔던 아동발달 연구에 거시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나아가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언제’ 경험하였는가, 즉 경험한 연령(개인시간) 및 가족

주기상의 위치(가족시간)에 따라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됨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의 시간성을 고려하는 연구는 대규모 종단자료가 늘어나면서 활성화되었다. 종단자료의 활성화는 또한 아동기의 경험이 전생애 단계에 걸쳐 어떠한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탐색을 가능하게 하였다. 나아가서는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와 같은 아동기의 경험이 세대간을 가로 지르며 전이되는가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은 이제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자료가 구축되기 시작한 단계이다. 시간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연구하면서 데이터와 해석은 횡단적 틀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며, 라이프코스(Life Course) 관점에서 상정하는 연령의 다차원적 시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sup>8)</sup>. 이제 국내에도 종단자료의 구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생태학적 모델에 비하여 국내 아동학 연구에 소개가 덜 된 라이프코스 관점을 적용하는 실증연구의 증가를 기대해 본다.

### Ⅲ. 실제적, 정책적 이슈

#### 1. 가족의 변화 및 신 사회위험에 따른 대비

아동의 일차적인 발달 환경인 가족은 그 세대 구성, 규모, 구조 등의 측면에서 지난 30년 동안

8) 위에서 언급한 세차원의 시간은 개념적으로는 구별되지만, 경험적 지표는 모두 ‘연령’으로 통일된다. 개인시간은 역연령이며, 역사적 시간은 출생코호트로 주로 지표화 되므로 연령과 동일하고, 가족주기도 연령과 분리하기 어렵다. 서구에서도 아동발달에 대한 탐색은 주로 아동의 역연령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라이프코스 관점과 함께 연령의 다차원적 시간성을 고려하는 연구문제와 결과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다.

끊임없이 변화하여왔다. 가족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위험(social risks)을 만들어내었다. 빈곤, 실직, 질병 등과 같은 구 사회위험과 달리 신 사회위험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가족의 변화에서 초래되는 양육과 부양 영역에서의 공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적 영역으로 여겨졌던 가족에서의 변화는 그 동안 보상 없이 수행되어 왔던 가족의 양육과 부양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다. 출산율의 저하, 양육 및 보호 기능의 약화, 사회화 기능의 약화는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미래 세대를 재생산해오던 가족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이 변화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일차적 안전망으로써 아동을 보호 양육하던 가족의 영향력이 전통적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의 증가에서 나타나듯이 부모 모두에 의해 키워지는 대신 어머니나 아버지 혼자, 혹은 다른 주 양육자에 의해 키워질 수 있다. 부모가 다 있더라도 가정에서 어머니에 의해 키워지는 대신, 보육시설이나 양육도우미에 의해 키워질 수도 있다.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가족이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던 전통적 방식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적 영역으로 여겨진 가족이 변화한다는 것은 아동에 대한 시장이나 국가 등 공적 영역의 개입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변화에 대한 파악과 대응은 국가보다는 시장에서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 변화하는 가족유형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와 상품이 생산되어 시장에 제공된다. 한 예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가정 내 자녀양육을 대체하거나 보완해줄 수 있는 보육, 교육 서비스들이 양

적으로 팽창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시장규모는 1.4조억원, 초등교육시장규모는 7.2조억원으로 총 8조 5천억에 달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확대에 비해 국가에서의 대응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시장에서는 아동이나 가족을 소비자로서만 보지만, 국가에서 볼 때 아동과 가족은 미래 시민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주체이다. 그런 면에서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공공성을 가진다. 지난 30년 동안 아동과 관련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과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보편적인 아동정책이라고 할 만한 정책이 부족하며, 가족의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혜택이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가족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적인 영역인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유형의 가족을 전제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시행된다.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어머니들을 도우미로 활용한다.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나 지역사회의 프로그램들은 어머니가 주 양육자임을 전제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설계와 시행에 있어서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2. 소득계층간 차이 완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두 차례의 심각한 경제 위기는 소득계층 간의 차이를 증가시켜서 부유층 소득과 중산층 소득간의 격차, 그리고 부유층 소득과 저소득층간의 격차를 증가시켜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중산

층의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아동의 관점에서 볼 때, 소득 양극화의 문제는 빈곤의 대물림과 관련된다. 교육이나 노동을 통해 계층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고, 부모세대의 빈곤 문제를 다시 자녀세대에서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실증적인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빈곤층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낮아져 빈곤이 고착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구주 가족에게서 이러한 경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석상훈, 2009).

소득 양극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출산율의 변화나 가족구조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자녀에 대한 가족의 투자는 소수의 자녀에게 더욱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VIB 신드롬(Very Important Baby Syndrome)에서도 발견되듯이 한 명 또는 두 명밖에 없는 자녀에게 최고의 양육과 교육을 해주기 위해 가족의 모든 자원이 투입된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에게 투자되는 정도에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가족구조에 따라서 또 한 번 커진다. 가족구조에 따라 아동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자원이나 경제자원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이상 아동의 학습시간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부자가족이나 조손가족의 아동들이 양친부모가 모든 있는 가족의 아동에 비해 학원에 다니는 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진미정, 2008).

계층 간 차이가 소득 양극화와 가족의 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의 발달이나 복지 수준이 심각하게 벌어지거나, 부모세대의 빈곤이 자녀세대의 빈곤으로 재생산되지 않도록 아동정책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할 필요

가 있다.

### 3. 보육·아동·청소년·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의 유기적 연계

지난 30년 동안 아동과 관련된 정책은 전반적으로 확대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청소년육성정책, 가족정책, 저출산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들이 전문적으로 분화되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정부부처 간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관련 단체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아동이나 가족을 둘러싼 정책들이 때로는 중복적으로 만들어지고 때로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면서 비효율적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보육정책,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의 제·개편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육정책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그리고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관할부처가 변경되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였다. 아동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분야의 이기주의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박민선(1995). 다양한 가족생활.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291-329. 서울 : 경문사.
- 석상훈(2009). 소득계층이동의 추이와 변화요인. 사회보장연구, 25(1), 25-44.
- 신명호(2005). 한국 사회의 양극화현상의 원인과 특

- 정. 도시와 빈곤, 77, 5-27.
- 여성가족부(2007).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 유희정 · 서문희 · 김종해 · 최혜선(2006).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 연구포럼총  
서 06-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현송(1999). 실직자 가족의 복지욕구와 가족정책.  
사회복지정책학회지, 9, 155-176.
- 임인숙 · 안병철(2002). 경제위기가 가족해체 고려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2(2), 1-23.
- 조선일보(2009). 심층리포트, 가족의 재구성 '엄마는 회  
사가고, 아빠는 마트가고'(2009. 7. 27일자 A1면).
- 진미정(2008).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  
교. 가족과 문화, 20(3), 187-211.
-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태통계연보. 대전 : 사회통계  
국 인구동향과.
-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대전 : 사회  
통계국 인구동향과.
- 한경혜 · 성미애 · 진미정(2006). 가족발달. 서울 :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한경혜(1997). 인구변동과 가족생활. 한국인구학회(편).  
인구변화와 삶의 질. 서울 : 일신사.
- 
- 2009년 8월 9일 투고, 2009년 11월 2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